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소개 - 나무

2021년 5월 24일

* 광복 체제 붕괴 후 인공어는 대규모 벌목 정책으로 인해 민등산으로 변한 산이 보인다

해마다 1억 그루를 베어내고 그 다음 어린 나무를 심는다는 정책.

⇒ 고래가 삶의 터전을 잃고 나무는 잘려나감

<< 산림청 정책 >>

'탄소중립을 위해 나쁜 나무를 베어내고'

'상대적으로 탄소흡수량이 많은 어린 나무 30% 이상을 심겠다.'

* 수원강대규모 벌목이 이뤄지고 있는 강원 홍천군 두촌면 밀대

⇒ 도로를 기준으로 양쪽산 모두 벌목된 양산이 드러남

⇒ 홍천군에서만 모두 죽어간 330개 크기의 나무가 없었음
곳곳에 나무가 쌓여있고 토끼에 실려감

<문제점>

- 30억 유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산주들이 내주내도 산밭이 벌목에 들어들 것
비밀지원을 세금으로 하고 있어서 산주들이 다 벌목하고 나뭇길 잃은 것.

- 안전문제. 나무 대규모 벌목으로 인해 풍층이 떨어져 폭이
클러떨어져 내림. 흘러내리고 있는 토양을 임시방편으로 막아
탄소흡수력 산사태는 예견된 일 → 인명피해할 것.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소개 - 나무
나무 사.

정생의문제

- 어떤 노후된 나무가 탄소 흡수를 못해서 문제가 되어 벌목해야 할까?

⇒ ① 정부의 1차원적 고민

② 이미 베절된 탄소를 흡수하는데 중점을 둔 정책
배출권 자체를 줄이는 근본 방안을 모색해야 함

③ 푸르르게 우거진 나무가 주는 이점이
너무 많고 어떤 나무가 자라기까지
수십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간다.

④ 기존 산을 깎아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필요한 나무가 없는 곳에 나무를 심고
목재를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노태 - 나무 ②

2021년 6월 10일 (경향신문) "산막고 나무베어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읍과 주변 지역에
튀르 의심되는 개발행위 적발 (산림청 행정의)

* 구좌읍 세화리에 있는 임야 9982㎡ 후손
지가상승을 위해 훼손.

A씨 할아버지

→ 세화리 1만 530㎡를 매입한 뒤
산림 경사면에 있는 나무를 제거하고
수직 절벽 암벽 1만 톤을 절토해 1907㎡ 규모의
농경지를 조성.

↳ 인접 공유지 임야 3726㎡를 후손하고,
타인 소유 임야 349㎡를 전입으로 조성

↳ 2011년부터 최근까지 세화리 임야 등 12필지 44만㎡,
대해시도 허가없이 훼손해 농지를 조성.

기여회 시세차익을 얻음

B씨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상대보전지역을 대규모 절토하고 후손, 3817㎡ 확보

C씨는 산지발법개발, 생산업 수산리 임야 2만 2373㎡ 중
5186㎡를 불법훼손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노래 - 나무 ③

2018년 8월
제주 비자림로 '삼나무 벌목'

비자림

- 세계 최대의 단일수종 숲
- 500년 넘은 비자림 2800그루가 하늘을 뒤덮고 있다
- 하늘높이 솟은 삼나무 덕에 (천연의 숲)
- 바람이 많은 제주의 방풍림

비자림을
3배 정도로

30분 서적

사라져나갈
(신성한 숲)

비자림은 휴양지임으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농산물 수송 원활을 위해
즉 도로 확장을 위해 나무를 910여그루

벌목상태

인사이트

돈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곁을 지켜온 나무와 산을
원만하게 잘고 나무를 베어낸
몇몇의 개개인에게 깊은 분통이 있다.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큰 나무를, 생명을 죽일 수 있다는 것
더이상 그냥 지켜보셔도 짐작하시든
용인하시든 안 될 일이다.

=> 나무와 숲은 너와 나의 가족의 산, 우리 지구의 생명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소중한 생명이다.

=> 나무를 함부로 잘고 벨 수 있다면 야만을 넘어설 때이다. - 하늘다랑쥐 2020년 8월 10일, P.31쪽.

나의인사이트

⇒ 나무에 대해 함부로
 인간의편의를 위해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잘라서 죽이고 버리고.
 돈을 벌고 하는 행위
 → 인간의 교만, 자인함
 자연을 기만하는 행위나 생각

시민들은

사랑하는 숲, 어린 삼나무가 살아 있는 씨앗을
 죽이고 반지 말아달라며
 대규모 삼나무를 벌목사태를 슬퍼하고
 비자립 공사를 반대하고 있다.

나의인사이트

⇒ 나무와 숲
 자연과 인간이 연결되어있고
 함께 숨 쉬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무가 이유없이 잘려나가면
 내 영혼은 슬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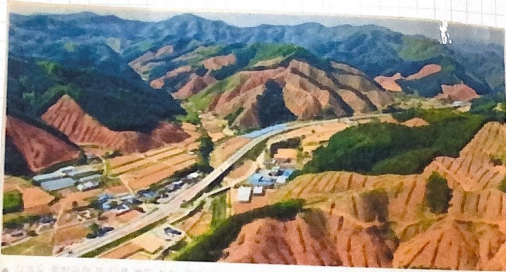
간성구사타 사진들 2



매일 마을 맞는 시민 개개인이 모여 '베어질 숲에 동지들 틈 생명들'을 찾아 나선다고 한다.
 moonlightbook forest 인스타그램 캡처.



2021년 지금의 산



4. ... 면 도로를 따라 양쪽의 숲이 사라졌다. 벌목된 숲의 면적이 어마어마한데, 우리의 사망지형인가 싶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풍경과 전혀 다른 느낌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큰 규모의 처참한 벌목 현장을

2021년 현재! ↓ 믿을수 없는 우리의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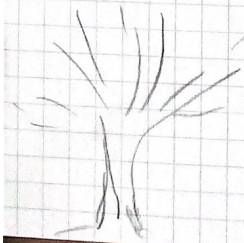
드물게 포획된 미구관이 벌목 현장
- 지난 13일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일대 숲이 벌채로 인해 민둥산이 돼 있다
40-50년생 잣나무가 자리하던 이곳은 산림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예린나무를 심기로 하고 벌목을 진행했다
이 사진은 드론으로 촬영했다 / 고훈호 기자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노래 - 나무 ④ 내가 겪은 일

2020년 겨울

30년 정도 된 시골의 한 느티나무가 있었다.
그 나무는 여름에는 풍성하고 시원한 그늘을
동네사람들에게 제공해주고, 동네사람들은 그
나무 밑 개울가에서 쉬기도 하고 풍선도 날렸었다.

그 나무 위에는 다양한 새들이 왔다갔다했고
수려한 인물은 많이 없는 겨울에도 아름다웠다.



그런데 어느날 이 나무 옆 집에 어떤 사람이 이사왔다.
자신보다 먼저 원래 이 땅에서 나온 자란
이 나무를 그는 싫어했다.
본인의 집 마당에 어린 나무를 심고 다양한 꽃을 가꾸며
정원을 꾸리는 것이 취미였는데
옆집 느티나무는 '너무 커서' 자신의 집 담까지
범벅이 된다며 이 나무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동네사람들에게 나무를 잘라달라고 부탁했지만
동네사람들은 이 나무를 자르지 말라고 했다.
옆집주인이 가지치기 정도로 생각하고
자르거나 한 것을 옹기대고 아무도 없는 날
혼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큰 나무기둥을
목숨까지 걸고 칼집을 넣고 한순간을 했다.



동네사람들은 나무의 처참한 모습에
당연사실했다.

몇몇은 이 행위를 **목라** 할 수 없어서
의견을 내고 사다를 연구하고
나무를 지키기 위해 이불을 덮어주고
더이상 잘려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나무에 메시지를 출력하여 걸었다.

이번 일로 나무가 부러져서, 나무가 생가서씨 등의
여러 이유로 동네의 나무를 자른대거나

=> 반죽에 약을 부어서 죽이게 한다는 등의
많은 이야기들을 접하고 알게 되었다.

나무를 함부로 **죽인** 훼손해온 걸 보고 생각한 것이

(전대민간의 야망이라는 생명다양성재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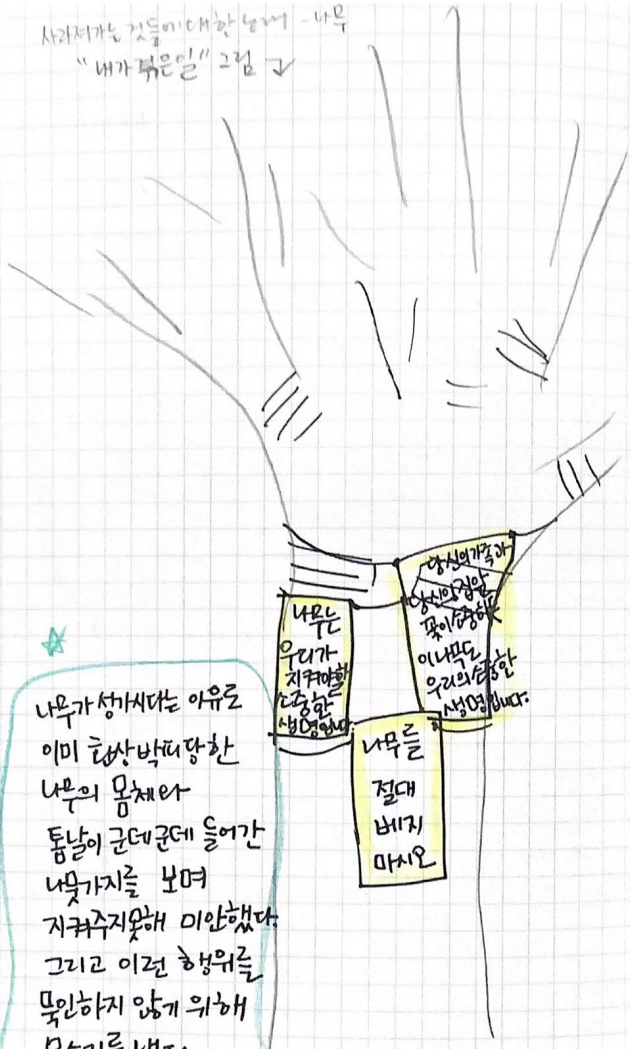
=> 2020년 겨울 기간 중에 나온 것을 봤는데 그리고
이런 목민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비밀비재하라는 이야기들 ...

" 나무를 함부로 자르곤 벨 수 있다는 야망은
사람들의 침묵과 묵인을 통해 확산되었다."
는 환경생태연구회장이 최정우 박사의 말처럼

=> 나무가 잘리고 베어지는 행위에
마음이 불편하거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적극적으로 나서고,
마음편으로만 안타가워하다가 제공해버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했다.

=> 2020 겨울, 동네에서 처참히 훼손된
우리의 친구 노티나무를
보러가야겠다.
계속해서 지켜보아야겠다.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생각 - 나무
 "내가 뭐야" 그런 거



나무가 생기는 이유로 이미 한참 박피당한 나무의 몸체와 톱날이 군데군데 들어간 나뭇가지들 보며 지켜주지않게 미안했다 그리고 이런 행복을 못만하지 않게 위해 목소리를 냈다.

"이 나무도 우리의 소중한 생명입니다."

관건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생각 - 나무

개인방수기

서울시 덕성동 들뜰 아음드리 플라타니스 가로수가 벌목 위기에 처함
 2020년 11월 26일, 벌목작업을 위한 공사준비에 나섰다
 시민들의 개신 항의와 12월 4일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에서 '가로수 제거 중지 및 시민공론회 요청'
 의견을 제출했다.

- 이제까지 나무가 베어진 것에 뉴스에 나올만한 '사건'으로 취급되지 않았던 것 같다.
-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가로수와 큰 나무들이 베어지고 있다.
 작년 서울의 서순라길의 유명한 은행나무의 느티나무는 반도가 죽는 이유를 모두 베어졌고, 창덕궁 앞 돈화문을 가던다는 이유로 큰 플라타니스 가로수가 베어졌다.
- 아마도 우리 주변의 큰 나무가 베어지는 안타까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시민들과 단체가 없기 때문이 가로수가 베어지는 것에 대한 어떠한 반대기도 없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주변의 숲 생명을 대하는 자의식이

2013~2014년

서울시에 집계된 가로수 관련 민원 6530건 중,
나무를 잘라달라고 하는 민원이 94%이다.

간편가림, 전선경합, 동지판가림, 밀집근린,
열대야식, 병충해, 조목위해, 변형불편 등이유

⇒ 평소에 나무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으로
일부 불편함을 이해할 여력 해결을 할수하는 민원

큰 나무를 스스로없이 베는 것은

나무의 생명에 대한 몰인정과 야만성을

드러내는 것. 나무의 물리적 밀집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어우러진 도시경관,

나무와 함께 지내온 수 많은 사람들의 상흔이,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배후로 된다. 그 함부로

우리 아이들의 생태감수성이 사라지는 것이다

가희위거나 개발사업으로부터 후손 위기에 몰린

극립공원과 보호지역,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는 동네의 자연과

생물을 잘 보살피고 아끼는 마음과 행동에서

출발해야 한다.

[사실 그 마음과 행동이 없이는 저 멀리 있는
북극곰과 대왕관다, 설악산의 산양과,
자이언스의 반달가슴곰은 살릴 수 없다

생명다양성재단 하늘리뷰
최호. 관련내용발표회

⇒ '생태 감수성'이라는 말이 나왔다.

우리는 왜 오래된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실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나무를 자르는 마음이

더 용감한 데기며 이를 아무렇지 않게 자행할까?

자연과 동물에 대해,

더 크기는 '생명'에 대해

나도모르게 '무감각'해지는 마음은

우리 모두를, 지구를 위함엔 바쁘다.

어린 시절부터 혹은 계속 살아가면서

너와 내 주변에 함께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알없이 도움을 주고

알없이 존재하는 생명들에 대해

내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가?

다시 돌아봐야 할 것이다.

등장에 나온 기사에도 다루었
'개벌'은 탄소를 가두는
중요한 자연 흡수원이다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노력 - 새 ①

새만금은 드문새가 그대위 ...

<요약>

2004년, 새만금을 찾았을 때물떼새는 16만마리.

2019년에는 4800 여마리.

그동안에 어업생생량은 반토막, 해수면어업어획량은 73% 감소.

⇒ 드문새는 먹이가 없어지고
사람은 먹고살길이 끊어짐.

지난 15년간 새만금은 죽어가고.

2020년 7월 18일에는 새만금 2단계 수질평가가 있다.

<내용>

(1991년 간척사업이 시작 (4조원이 들었음))

→ 2006년 방조제로 막힘 → 개벌매립 (육지를 바꿈)

→ 지역수산업 몰락.

수질은 1등급에서 → 6등급인 가장 낮은 등급까지
떨어졌고, 개개류를 비롯한 어업생생량
90% 감소 75% 감소

새만금 갯벌은 사람뿐 아니라 동식물에게도 필요한 곳
동아시아 철새들이 긴 이동 중 쉬었다가는 중요한
중간기착지.

→ 갯벌 매립 후 새만금을 찾는 대륙적 새인

도요새, 물떼새의 개체수가 87% 감소,

분은 어개된 등은 멸종위기종으로 전락.

자연. 새만금생태환경영향

새만금이 다시 필요한 갯벌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방조제를 열어

해수를 유동시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도요새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다쳐지면 우리 갯벌을 찾았는데,
인간이 자연을 망가뜨리고, 부수고, 해치기 시작하면서
갈 곳이 없어졌다.

16만마리나 있던 도요새의 존재를
인간은 생각하지 않았다.

돌과 자신의 여러 이익만을 생각하고

자연은 다 부시고 훼손하였다.

자연 속에 어우러져 살고 있던

수많은 동물, 새들, 수많은 작은 생명들,

물고기와 조개류까지...

그들의 죽음, 그들이 터전을 잃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 인간들...

너무 미안하긴 때 미안하다.

새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보이지 않아 더 와닿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 더 잊혀지기 쉬운 새들...

보이지 않게 아득히 먼데 죽어간

새들을 생각한다.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노래 - 새②

서울 양천구청, 서울시 자청 철새보호구역 (안양천) 무단 파괴.

양천구청은 2020년 10월,
 공사한지 3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멸종한 현안을 부시고 철새들이 서식할 공간을
 겨울 철새가 오는 시점에 파괴함.
 이 구역은 **철새보호구역**이었음에도 과음대로 어떤 상의도 없이
 공사할 수 있다면 철새보호구역 제정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사건.

⇒ 이 공사는 하천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

⇒ 서울시 자연생태관에서 원상복구와 공사정지를 요구했지만
 양천구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이미 파괴된 서식지는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해도
 돌아지 않는다.

⇒ 철새보호구역에 다시는 이런 파괴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책적, 법률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철새보호구역을 훼손한 관련자들의 처벌은
 이루어져야 한다. (발췌. 생명다양성재단,
 하늘다양성연구소)
 (2쪽)

(오목교-목동교)
안양천 철새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
 철새들의 보금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양천구청은 지난 10월 공사한 지 3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멸종한 호안을 부수고
 철새들이 서식할 공간을 행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Before 2020년 9월 After 2020년 10월

↑ 관련사진,
 출처. 생명다양성재단

《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

자연을 보호하는 것,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행동

(일회용품 쓰지 않기, 천연세제사용, 분리수거잘하기,
대중교통이용하기, 에너지절약, 채식하기)

⇒ 어서 더 나아가서

말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버려지고

사라지는 수많은 생명들,

이땅에서 자행되고 있는 수많은

파리행위 (특히 인간이 인위적으로 가하는 행위) 에

시선을 두기, 관심을 두기 지나치지 않는 것.

⇒ 관심을 두기 시선을 두기 있다면

보여지는 많은 파리행위들이 더 잘 보이고 드러나

는데 된다.

⇒ 알게 된 상황을 " 묵인 " 하지 않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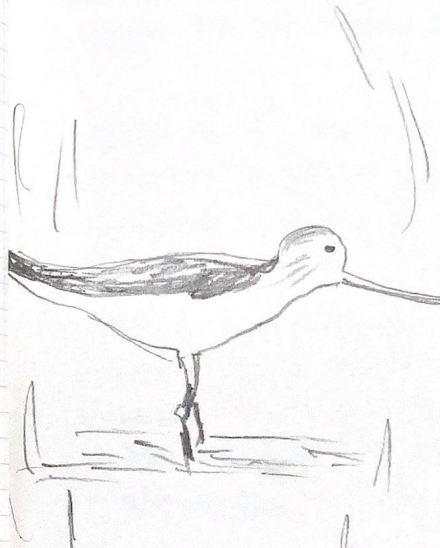
말하고, 항의하고, 묵인하지 않는 것이

반복되는 파리행위가 아무리 죄책감없이 자행되지 않도록

경고이나 막는 방법.

⇒ 가만히 있지 않아야겠다. 행동해야겠다.

도요새



나의 친구
나의 동료들
하루 둘 떠나갈 때
나만 혼자 남아
갈 곳을 찾아 헤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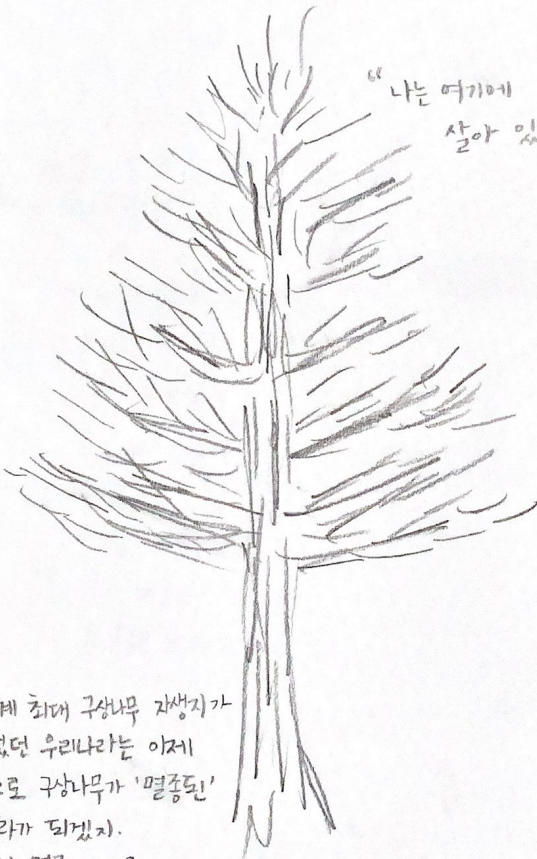
안개속에 흠뻑 젖어
보이지 않아도
알수있어

아무도 몰르게
꿈꾸지만
자유롭게 날아서
그 곳에 닿는 꿈
내가 있을 곳.

- 더이상 찾아지지
않는 새만금의
정리새 ...

얼마 많은 친구들이
죽음을 '당장'였'까 ... -

구상나무



“ 나는 여기에
살아 있어요.”

세계 최대 구상나무 재생지가
있었던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구상나무가 '멸종된'
나라가 되겠지.
아니 멸종위기를 겪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라
나무를 지켜내지 못한 나라가 되겠지.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노래 - 나무

세계 최대 자생지인 진달래밭 일대
구상나무의 90% 조사. - 한반도 구상나무의 멸종 위기.

- 구상나무는 높이 18m 내외까지 자라던 모양이 흔해진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서식하며 세계 최대 집단 군락지는
한라산이다. 유럽에서는 크리스마스트리 이용된다.
 - 녹색연합의 모니터링 (2016년 4월부터) 결과
한라산 내 구상나무 분포면적은 2015년에는
- 2006년 대비 15.2% 감소,
- 전체 구상나무 중 조사목 비율은 49.9%.
- 진달래밭 일대 구상나무 수의 감소율은 90%.
 - 원인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변화.
한라산의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한라산 구상나무의 떠죽음은 심각한 양상이며
향후 10년 안에 구상나무의 집단 군락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멸종위기종 등록과 행정조사 등의 대응이 필요하고
관광산업수익에 대한 보전권기 매뉴얼, 복원사업규칙등의
대응이 필요하지만 환경부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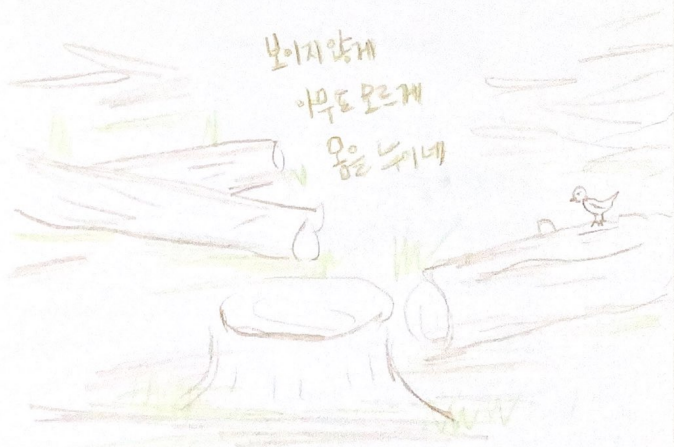
☆

‘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죽어가는 것을
사라져가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도 참 슬픈 일이지만
이를 알고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더더욱 슬픈 일이다.

자연이 파괴되고 사라지는 것,
생명체가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단체나 생명단체 동물단체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관심을 가진
더 이상 무관하지 않는
살의 대도가 필요하다. ☆

보이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가네

보이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몸을 누이네



넌
7

보이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가네

보이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몸을 누이네



사
4

이런도 영근
얼굴도 입은
네이름은 '물새'...



산림청, 탄소중립 명목으로 국토 75% 벌목 추진

기자명 이정은 기자 입력 2021.04.23 10:30

‘30년 넘으면 탄소흡수 능력 떨어진다?’ 과학적 근거 없는 엉터리 주장
[환경일보]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명목으로 전 국토에 30년 이상 된 숲을 벌목하고, 경제림을 중심으로 새롭게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내 30년생 이상 산림면적은 전체 산림면적의 72%를 차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4월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앞에서 산림청의 탄소중립을 빙자한 대규모 벌목정책을 비판하며 산림청이 지난 1월에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운동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산림청의 무리한 벌목 추진을 비판했다.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산림청은 나무의 영급별(나무의 나이를 10살 단위로 끊어 등급으로 나눈 것) 탄소흡수량을 계산한 국립산림과학원의 입을 빌어, 4영급 이상 된 '늙은' 나무는 탄소흡수량이 급격히 떨어져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베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에는 산림이 46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했는데, 위와 같은 계산이라면 2050년에는 흡수량이 1400만톤까지 떨어진다는 것이다.



강원도 춘천 /사진출처=환경생태 연구활동가 최진우, 환경운동연합



강원도 춘천 /사진출처=환경생태연구 활동가 최진우, 환경운동연합

↑ 춘천에도 벌목현장이 있었다니!

그러나 오래된 나무일수록 탄소흡수 능력이 높다는 연구 결과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
경향 부분!

2008년 네이처(Nature)지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100년이 넘은 숲에서 바이오매스 축적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시기는 무려 300년이 넘어가는 숲이다.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 홍석환 교수는 "산림청의 논리는 이 그래프에서 초기 20~50년 정도 데이터로 국한된다. 이 때 단기간 바이오매스 축적량이 증가하다 얼마간 평행을 이루는데, 이는 자연 상태에서 밀생하던 수목들이 서로 경쟁하다 급격히 도태되는 시기와 일치한다. 산림청은 마치 이 평행이 지속될 것처럼 해서 30억 그루 프레임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침지어 크고 오래된 나무가 높은 탄소흡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생태역사의 살아있는 화석'이라 극찬한 연구 결과도 있다. 바로 2018년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 발표한 연구다.

연구진은 큰 나무와 일반 크기 나무의 연 평균 탄소흡수능 차이(1990년대 27.5kg, 2000년대 29.4kg, 2010년대 35.8kg)는 최근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큰 나무의 지속적인 탄소흡수능 증가를 의미한다.

또한 이들은 "큰 나무들은 산림생태계의 고유성, 자연성, 역사성 등을 담보하는 소중한 산림자산으로 보전 가치가 아주 높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정명희 생태보전국장은 "지금은 나무를 베어야 할 때가 아니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노력을 정부가 앞장서서 실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를 가두는 최대의 흡수원인 갯벌을 복원하고 4대강을 재자연화하고,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더 이상 인간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위해 나무를 약탈하는 이런 방식의 정책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인간의 산업, 경제, 소비 활동에서 대대적인 변화 없이 멸절된 나무를 베어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산림청의 계획은 **벌목으로 돈벌이**하려는 행위에 지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기존 안 전면 철회 및 수정과정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 ▷ 벌기령 조정 금지 ▷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기존 안에 포함된 별채 예정지, 해당 지역 생태조사 계획 여부, 신규 조림 예정지, 조림 수종, 목재 판매 임업 회사 정보 등 해당 계획 공개를 산림청에 제안했다.

국제, 환경일보

2021. 4. 23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노래

작년 가을, 지구를 생각하는 창작노트를 통해 나무와 숲이 인간에게 주는 이로움에 대해 깊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무와 울창한 숲 덕분에 이 세상이 순환하고 그 덕분에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자연은 필수적인 존재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나무를 하나의 온전한 '생명'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씩 배워나갔던 것 같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무와 숲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계속해서 마음속에 맴돌았던 것은 셀 수도 없을만큼 수많은 나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없이 죽어가고, 고통받고,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조금 더 알아보고 직시해보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가는 동물- 특히 손에 잘 잡히지 않아서 인지하기 어려운 새들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노래]라는 제목은 거창했지만 사실 이 내용은 너무 슬픈 이야기이다. 작년에 이어 내 마음이 이끌리는대로 나무와 새에게 집중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연구를 하고자 하니 노트에 하나 하나 다 적지 못할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내 눈앞에 다가왔다.

이번 창작노트 사업을 통해 1991년 새만금 간척사업을 하던 시기에서부터, 2021년인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이기심과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 무자비한 나무 벌목과 자연 훼손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기록했다. 그러면서 30년간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우리사회의 환경정책의 현실을 목격할 수 있었다.

1991년에 시작한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우리땅을 찾던 17만마리의 도요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2021년 심각한 기후 위기로 인한 이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더 심각했다. 나무를 나무가 필요한 곳에 새로 심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나무를 다 벌목한 뒤에' 그 자리에 어린 나무를 다시 심겠다고 한 것이다. 본질을 간과한 탄소중립 정책은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인식,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지금도 사라져가고 있는 수많은 생명을 생각한다. 나무가 죽음으로서
그로인해 사라지고 있는 새들과 그들의 집, 나무가 죽음으로서 함께 사
라지는 땅 속 많은 작은 동물들과 곤충들, 그리고 수많은 미생물들, 오
래된 나무뿌리가 사라짐으로 인해 흙 속에 저장할 수 없는 우리의 물,
산사태의 위험,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를 먹고 살 수 없는 동물들, 몸을
숨길 수 없는 다람쥐, 토끼 등의 소동물들, 산짐승들, 자연스럽게 파괴되
는 생태계를 생각한다. 관심을 갖고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을 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보이고 느껴지기 시작했다.

환경 문제는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대로 두면 되는 자연을 인간이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훼손하고, 파괴하는 것. 우리 삶에 필수불가결한
것들을 우리 삶에 필요하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는 태도 때
문에 일어난다. 그리고 이를 보고 불편함을 느끼는 자들이 이를 '목과' 하
는 것 또한 그들이 하는 파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것과 같다
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었다.

나의 역할을 생각해본다. 더 이상 그냥 지나치지 않고 무과하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잘못된 것을 잘
못되었다고 말하고 표현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 이를 예술가의 작품으로
언어로도 표현하며 더 이상 무과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고민하는 것,
그리고 고민을 통해 행동하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나를 살
게 해준 생명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하나의 작은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전할 수만 있다면 인간에 의해 말없이 죽어가는 사라져간 많은 생명들
에게, 그동안 우리 곁에 있어주어 고마웠다고, 그리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다.